

두산중, 유럽 발전전시회서 ‘최우수 기술 논문상’ 수상

-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 기술 개발 발표



두산중공업(사장 이남두)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06 파워젠 유럽(Power Gen Europe) 전시 컨퍼런스에서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기술 논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배열회수보일러는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로서 현재 드럼형이 배열회수보일러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번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는 드럼형에 비해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어 열효율이 높은 차세대 모델이다.

관류형 배열회수 보일러는 압력조건에 따라 아임계압과 초임계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임계압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의 경우 지멘스와 알스톰이 상용화를 시작한 수준이며, 초임계압 배열회수보일러는 세계적

으로도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특히 관류형은 발전소의 기동과 정지가 빨라 여름철과 같이 전력수요의 변화가 큰 시기에 발전소를 빨리 끄고 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세계 배열회수보일러 시장규모는 약 1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는 유럽, 미국 등에서 약 3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임계압 배열회수보일러의 수요 발생 시점은 2010년으로 예상되며,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 시장의 약 20%를 초임계압 배열회수보일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세계 시장에서 초임계압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수상으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기술력을 인정받게 돼 현재 배열회수보일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0년부터 기술연구원 내에 개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실험설비를 구축하는 등 기술개

발을 추진해왔으며, 산업자원부에서도 초임계압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 기술 개발을 국책과제로 선정해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전시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한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김현기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전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고성능 가스터빈에 상응하여 고온, 고압에서 운전할 수 있고 기동성이 뛰어난 초임계압 관류형 배열회수보일러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열회수보일러는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열을 재활용해 다시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복합화력 발전용 설비로서 열효율과 경제성, 환경친화성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파워젠 유럽 전시회는 세계적인 발전분야 전시회 주관사인 펜웰(Pennwell)이 매년 유럽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두산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 독립 전시관을 마련했는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



토막 상식

매의 주민등록증
- 시치미

이 히 아는 사실을 모르는 척할 때 '시치미를 떤다.'라는 표현을 쓴다. 한글 사전에는 '시치미'를 '매의 꼬지털 속에 매어두는 쇠뿔을 얇게 깎아 만든 꼬리표'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치미를 떤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고려 시대의 귀족들은 매 사냥을 할 수 있었으므로 사냥에 쓰이는 내는 값이 매우 비쌌다. 그래서 매의 주인들은 매를 잃어버릴까 봐 매의 꼬리에 주인의 이름을 적어 놓은 시치미를 매달아 놓아 주인 있는 매임

을 표시했다. 말하자면 매의 주민등록증인 셈이다.

하지만 시치미를 달고 있는 매를 잡아 그 시치미를 살짝 떼어 버리는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 시치미를 떼어버리고는 '내가 지금 막 잡은 매인데 그게 뭔 소리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남의 시치미를 떼어 버리고 자기 시치미를 슬쩍 달아놓고는 '보시오, 내 시치미를 달고 있잖소?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 후 '시치미 떤다.'라는 말이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시치미 떼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